

한국 스트리트 패션에서 도덕성과 관련한 미의식 변화에 관한 연구

하 지 수

서울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의류학과

A Study on the Aesthetic Values related to the Morality Expressed in Recent Korean Street Fashion

Jisoo Ha

Dept. of Clothing & Textiles, Seoul National University

(2004. 11. 12. 접수)

Abstract

Every Society has its own ideology and lifestyle and these form its unique aesthetic experience or values. In the paper observing recent, especially in 1980s and 1990s, Korean street fashion that is one way of expressing their values and lifestyle, the aesthetic values related to the morality have been studied. Through the studies using the cases of Korean street fashion style we can understand the change of morality and fashion style according to the change of socio-cultural environments more deeply. For study methods documentary study and case study were executed. Morality related clothing were defined in detail through documentary studies and for analysis of street fashion from 1980s and 1990s the cases from 'Mut' and 'Ceci' magazines as well as the articles from Chosunilbo, Dongailbo and Maeilkyungje were looked over one by one. By understanding the intrinsic meanings and formal features of recent Korean street fashion, the direction for future fashion designing could be guided, which could satisfy consumers' needs in the rapidly changing world situation. Followings are the results of the study. First, morality of clothing could be defined in detail regarding modesty and extravagance. Modesty could be directly related to exposure of body and norms for appearances and extravagance to fashion oriented, luxury goods or brand name oriented and spending. Second, the exposing body has been accepted and permitted by public even with criticism more easily but they were less generous to values about norms regarding clothing. Third, the change of morality related to modest has happened earlier than the change of morality related to extravagance, which has begun very recently in 2000s.

Key words: Morality, Korean Street Fashion, Modesty, Extravagance; 도덕성, 한국 스트리트 패션, 정숙성, 사치성

I. 서 론

한 시대의 사회에는 일정한 생활양식이 있고 그에

본 연구는 서울대학교 신입교수 연구정착금으로 지원되는 연구비에 의하여 수행되었음.

따른 이념이 있으며, 이러한 생활양식과 이념들은 이
에 상응하는 미적 경험, 혹은 미의식을 유발한다. 본
고는 우리나라가 국제 사회에서 어느 정도의 위치를
획득하고 경제적인 상황이 획기적으로 개선된 1980
년대와 1990년대의 한국 젊은이들의 생활양식의 한

형대인 스트리트 패션에 대한 고찰을 통해 이 시기의 도덕성과 미의식의 변화를 고찰하는 연구이다.

우리나라는 개화기의 문화적 충격과 사회적 동요가 수습되기도 전에 일제 치하의 억압의 시대를 경험하였으며 해방 이후로는 정치적 격동 뿐 아니라 외래 문화를 수용하는 과정에서 심한 가치관의 혼란을 겪었다. 60, 70년대에 젊은이들 사이에서 선풍적으로 유행했던 미니스커트와 장발은 당시 사회의 통념에 의해 외설적이고 퇴폐적이라는 이유로 법적인 제재까지 받았으나 90년대에는 그와 유사한 스타일의 복식이 유행현상의 하나로 부리 없이 수용되고 있다. 그러나 서구적인 가치관이 지배적인 오늘날에도 복식에 대한 도덕성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주목하고, 최근 사회의 변화와 함께 급변하는 한국인의 도덕성과 관련한 의식 변화를 이해하고 이를 복식에 적용시켜 현재 우리나라 스트리트 패션 속에서 그 변화를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스트리트 패션에 대한 기존의 여러 연구가 있으나 한국 스트리트 패션보다는 국외의 사례를 해석하려는 연구(강경자, 2001; 김찬주, 2003; 염혜정, 조규화, 1992)가 많이 있어왔으며 이를 한국의 도덕성과 연결시켜 이해하려는 연구는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우리나라 스트리트 패션에서의 사례를 통해 사회변화와 문화변동에 따른 도덕성과 관련한 미의식의 변화를 파악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 복식의 유행변화도 간접적으로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문헌 연구와 사례연구를 병행하였다. 연구의 방법과 범위는 복식과 관련한 도덕성에 대해서는 문헌과 선행 연구를 중심으로 정리하고 1980년대와 90년대의 스트리트 패션에 대해 사례분석을 하였다. 1980년부터 90년대 이후 최근까지의 국내 잡지, 특히 멋과 Céci를 중심으로 조사하였으며, 80년부터 현재까지의 조선일보, 동아일보 매일경제의 기사를 참조로 하였다. 멋과 Céci는 현재 발행이 중지되었으나 월간 멋은 1984에 시작된 최초의 국내 패션 전문 잡지이며 Céci는 10대를 타깃으로 한 최초의 패션 전문 잡지이다. 국내 3대 신문 중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를 선택하였으며, 그 외에 경제를 중심으로 다루는 신문인 매일경제를 선택 참조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인간의 정신세계를 표출하는 문화 총체의 의미로 복식 현상을 다시 한번 자리매김하고, 현대 젊은이들이 한국 스트리트 패션을 통해 표현하

고자 하는 내적 가치와 외적 형태미를 구체적으로 밝힘으로써 급변하는 사회와 문화 속에서 소비자들의 구체적인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미의식을 표현하는 패션 디자인이 조형적으로 나아가갈 방향을 가능해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II. 복식과 관련한 도덕성

1. 복식과 관련한 도덕성의 일반적 정의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the Social Sciences (1968)에 따르면 도덕(moral)의 어원은 라틴어 <more>로서 간단하게 말하여 '습속'의 의미를 갖는다. 습속은 도덕적, 윤리적으로 옳고 그름을 함축하는 사회적 규범으로서 도덕의 근본을 형성한다. 복식에서 '습속'에 해당하는 것은 주로 성에 관련된 금기나 나체에 관한 것(Horn and Gurel, 1981)으로 Ribeiro(1986)은 비도덕적인 복식이란 주어진 상황에서 사회가 수용 불가능한 복식이라 하였으며, 복식 자체는 비도덕적인 것이 아니고 부적당한 상황에 입혀졌을 때 비도덕적인 것이 된다고 하였다. 즉, 많은 규범들 가운데 '복식규범'이란 사람들의 의복착용방식을 통제하는 여러 사회적 습관을 포괄한 개념으로서 '사회집단 내에서 수용되는 착장방식'으로 정의될 수 있겠다. 도덕가들은 항상 정숙하고 예의 바른 복식을 주장하고 진보적인 개혁가들도 이상적인 의복, 실증나지 않고 사치스러운 유행변화에서 벗어난 변함없는 의복, 실용적이고 위생학적인 의복, 아름다운 의복을 고안하기 위해 애써왔다(Ribeiro, 1986). 부적절한 것으로 인식되어 비난과 개혁 또는 개량의 대상이 된 복식을 비도덕적인 복식이라고 할 때, 이상적으로 추구되는 정숙하고, 검소하고, 실용적이고, 아름다운 복식은 도덕적인 복식으로 파악할 수 있다.

도덕성과 관련하여 정숙성, 사치성, 기능성, 유행성, 위생성 등 다양한 특성(신소윤, 1994)들이 있으나, 그 중에서 도덕과 직접적으로 관련을 갖는 특성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정숙성과 사치성이라 할 수 있다. 본 고에서는 기능성과 위생성은 도덕성과 간접적인 관련을 갖고 간접적으로 사회의 비난을 받는 특성으로 보았으며 유행성은 사치성에 포함시켜 살펴보자 한다. 다시 말해서 위생성과 기능성은 의복의 물리적인 측면에 관한 것으로 건강과 위생 면에서 유해하거나 신체활동에 장애를 주거나 관리가 불편한 의

복의 특성으로 위에서 살펴본 복식과 관련한 도덕적 비판에서 역사적으로 지나친 유행의 추구로 인해 신체적 변형이 발생하거나 건강에 장애가 발생한 서양의 코르셋이나 중국의 전족과 같은 경우를 그 예로 들 수 있다. 그러나 이는 그 시대와 민족의 유행지향성과 깊은 관련이 있으며 유행지향성은 사치성에 포함되는 하위 개념으로 파악할 수 있겠다.

1) 정숙성

정숙성은 좁은 의미로 ‘성적 흥미와 관련된 신체 노출 정도’를 나타내나 넓은 의미로 사회적으로 기대되는 역할과 관련한 예절, 바른 행동과 관련한 예의, 행실이 바른 태도, 적절한 옷가짐 등을 포함하여 ‘일반적인 사회적 규범의 준수’를 뜻한다. 복식의 도덕성을 논할 때 그 대부분이 성적인 문제에 집중되며 논쟁의 초점은 신체의 노출과 은폐, 또는 특정부위의 강조에 따른 ‘의설성’의 여부이다. Flugel(1930)은 ‘성적 과시, 노출, 성적 욕망, 혐오감이나 수치심, 아름답거나 화려한 옷을 억제하는 것’이 정숙성의 목적이라고 했고 Ellis(1930)는 정숙성을 ‘성기를 중심으로 한 노출에 대한 두려움이나 혐오감을 방지하는 것’으로 보았으며 Langner(1959)는 ‘신체노출의 허용에 대한 행동기준’이라고 정의했다.

Webb(1971)은 여자가 교회에서 모자를 벗는 것도 정숙성과 관계된다고 했고 Rosencranze(1977)는 정숙성 측정 시 맨발이나 스타킹의 착용태도를 포함시킴으로써 성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사회적 예의의 측면도 함께 정숙성으로 보았다. Creekmore(1966)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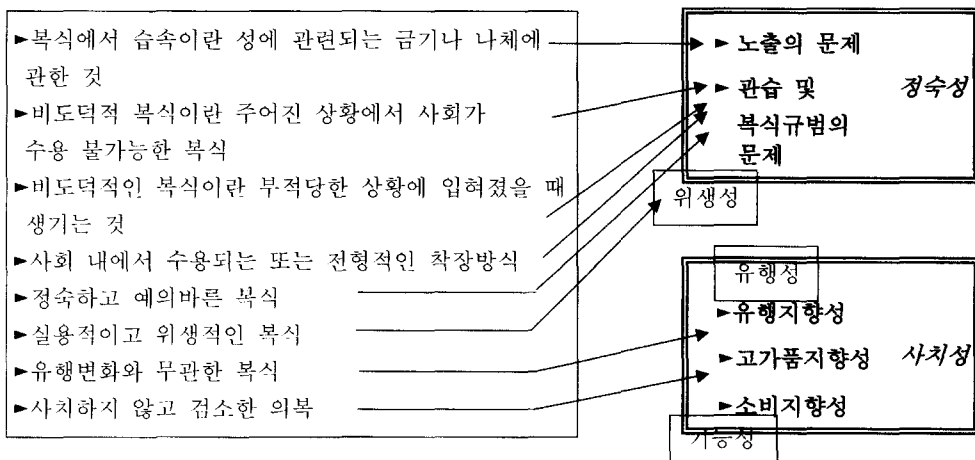
정숙성을 ‘눈에 띄지 않는 의복을 선호하고 색상, 몸에 맞는 정도, 디자인, 신체노출에 있어서 극히 보수적인 태도’로 정의하고 정숙성을 나타내는 의복은 수줍고 예의바르고, 품위 있고, 허식 없고, 보수적인 의복이라 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고에서는 특히 신체의 노출에 관심을 두되 그 외 전통 및 예의와 관련한 복식규범을 정숙성의 범주에서 파악하고자 한다. 여기에는 노출의 문제와 함께 연령 및 직업 역할, 계층과 지위, 때와 장소에 따라 기대되는 성별, 연령, 신분 등 복식의 관습 및 복식규범의 문제를 포함할 수 있다.

2) 사치성

인간의 사치본능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늘 문제가 되어왔다. 많은 도덕가들과 이상주의자들도 의복의 사치는 반드시 없어야 할 것으로 믿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신라 흥덕왕 9년에 내려진 복식금제령이 그 효시라고 할 수 있는데 서문에 사치성향과 외국산 선호를 규제코자하는 취지가 잘 나타나 있다. 사실 대부분의 복식금제는 사치금지보다는 계급구분에 대한 규제가 많으며 부녀자의 지나친 가체를 금한 예도 보인다(유희경, 1980). 오늘날 계급 구분을 위한 사치금지법은 거의 존재하지 않으나 사치풍조를 경계하여 사회도덕을 유지하고 소비자과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은 계속되고 있다.

‘유행’은 일종의 사치를 유발한다는 점에서 종종 비난을 받아왔다. 옷의 유효수명이 다해서가 아니라 유행의 수명이 다해서 옷을 폐기해야 한다는 것은 무의



<그림 1> 복식과 관련한 도덕성

미한 경제적 낭비를 뜻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근대 이후로 유행의 변화가 가속화되면서 유행과 이를 추종하는 이들은 자주 신랄한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상에서 사치성은 새 것에 대한 무조건적인 선호, 과시적인 소비 행태, 유행 지향성, 지나친 고가 외제품의 선호 등 물질적인 검소함의 덕목에 위배되는 복식과 관련한 행태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내릴 수 있겠다. 그러므로 복식에서 사치성은 유행지향성, 고가품지향성, 소비지향성으로 세분하여 볼 수 있다.

복식과 관련한 도덕성의 개념을 정리하면 <그림 1>과 같다.

2. 복식과 관련한 한국의 도덕성의 변화

1) 한국의 도덕성의 근원과 성격

역사적인 관점에서 보면 우리의 경우 불교문화, 유교문화, 일본문화, 미국문화 등이 차례로 들어와서 여러 가지 가치관이 섞여서 우리들의 행동을 지배하여 왔고 최근에는 여러 가치관의 동시적인 존재가 심각한 가치관의 혼란과 무규범 상태를 빚어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여전히 행위의 지침으로 지배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문화는 유교문화임에 틀림이 없다. 한국인의 가치관을 다루게 될 때 누구나 서슴없이 가장 먼저 드는 것이 가족주의적 특성과 위계의식이다. 평등한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고 연령에 따라서 성별에 따라서 그리고 신분과 지위에 따라서 철저

하게 서열 의식을 가지는 사회구조를 유지해 왔다. 이러한 의식은 오늘날 수평적, 평등적인 관계를 중시하는 민주주의 가치관과 상충되어 긴장 내지는 혼란을 빚고 있지만 아직도 우리 의식 속에 뿌리 깊게 남아 있어서 사고와 행동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배용광, 변시민, 198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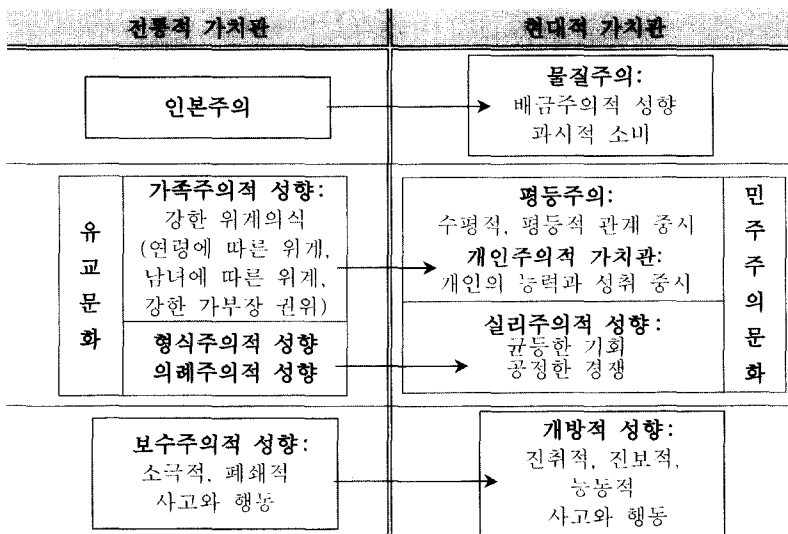
또한 우리의 전통 문화와 규범은 형식주의적 성향이 강하다. 의례주의라고 할 수 있는 이 특성은 예의 규범 절차가 까다로운 유교적 문화전통에 기인하는 것으로 생활 전반에 허례와 허식이 만연하게 되었으며 동시에 짙은 보수주의적 성격을 띠게 되었다. 유교에서는 진취적, 진보적인 사고와 행동을 위협시켜서 새로운 문화를 받아들이는데 소극적이며 폐쇄적이다.

현재 한국 전통적 가치관 즉 인본주의, 권위주의, 집합주의 가치관이 서구문화와 접촉을 통하여 물질적 성공주의, 평등주의 그리고 개인주의 가치관으로 이행하면서 여러 가지 가치 혼란과 아노미 현상을 빚어내고 있다. 한국의 도덕적 가치관의 구체적 변화는 아래 <그림 2>로 정리될 수 있다.

2) 복식과 관련한 한국의 도덕성에 대한 사적 고찰

(1) 정숙성

조선 여인들은 발의 노출을 몹시 꺼려서 버선을 신고도 치마로 발등까지 가렸다. 이러한 관습에 비추어 볼 때 발목이 보이는 통치마의 등장은 충격적인 것이



<그림 2> 한국의 도덕적 가치관의 변화

였으나 1920년경에 이르러서는 여학생 교복으로 짧은 통치마가 일반적인 것이 되었는데 학교에서는 발목 노출에 신경 써서 대체로 무릎에서 발목 길이의 1/3으로 치마길이를 규정했다(유수경, 1990). 1920년대에는 인천 월미도 해수장에 처음으로 해수욕복이 등장하였는데, 허벅지와 겨드랑이를 드러낸 수영복은 당시 사회적으로 충격으로 받아들여졌다. 1928년경부터는 어깨와 겨드랑, 넓적다리까지 노출시켜서 현재의 수영복과 비슷한 모습을 보이게 되었다.

맨살이 비치는 옷, 점점 짧아지는 치마 길이, 발가락과 뒤꿈치가 보이는 샌들, 단발머리와 파마, 매니큐어와 화장 등 다양한 서양 복식 습속은 한국인들의 가치관과 충돌을 일으키며 격렬한 비판과 반대 속에서도 점점 그 강도와 모습을 달리하면서 한국인의 패션에 자리 잡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70년대 서양의 유행에 영향을 받은 미니스커트와 핫팬츠의 등장으로 극에 달하게 된다. 심지어 외국에서도 ‘스커트를 둔부선 까지 짧게 입는 여자들은 패션을 전혀 모르는 건달들, 스커트 자락은 5인치 잘라버리고 새롭다고 하지만 내가 볼 때는 웃음거리, 어린 아이들이나 입을 그 따위 옷을 나이든 여자들은 제발 입지 말라(“미니스커트”, 1968)’ 등의 반응을 일으켰던 짧은 스커트가 한국에 등장했을 때, 아직 유교윤리에 젖어있던 기성세대의 충격은 당연한 것이었다.

70년대에는 우리나라 복식에서 유니섹스 룩이 시작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남성복에 캐주얼이 보급되기 시작했고 양복 색상도 점차 여성화 되어가면서 성의 벽이 무너질 전향을 보였다. 남녀 구분 없이 입혀진 블루진에 대해서 비판적인 이들은 주로 여성의 청바지 착용을 나무랐다. 유교문화의 남녀유별(男女有別)을 우주만물의 기초로 받아들였던 가치관이 무너진 것이다. 몹시 더러워진 넓고 긴 바지로 땅을 쓸고 다니는 것, 바짓단이 너털너털하게 헤어진 것을 그대로 입는 것, 지나치게 몸에 꼭 끼는 것들은 보는 사람들을 불쾌하고 입은 사람의 마음가짐을 의심하게 한다(“세계여성의 복장 블루진”, 1977)는 비난이 있었다. 1971년에는 당시 유행한 남성의 헤어스타일인 귀를 덮을 정도의 긴 장발은 종래의 관습과 규범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강제단속 대상이었다.

(2) 사치성

‘사치성’은 유행을 추종하여 의복을 과다소비하고 고가품·수입품을 선호하는 태도이다. 1920년대에 핸드백이나 손목시계도 신여성이 선호하여 유행되었는

데 이러한 패션 소품들은 과시적인 성격이 강했으며 사치와 허영의 상징처럼 매도하는 분위기도 있었다. 또한 그 당시 굵이 높고 볼이 좁은 하이힐 구두는 신여성들에게 필수적인 패션품목이었다. 고무신에 비해 실용적이기도 했지만 신분과시적인 성격도 강하게 내포하고 있었다.

사치에 열중하고 유행을 좇으려는 노력은 날로 더해갔다. 30년대 말 전시체제로 돌입하면서부터는 소비절약운동이 벌어졌다. 의복비의 절약을 위해 예복과 상복을 모두 없애고 재생옷이 유행했다. 일반 여성들에게는 ‘간단복’을 권장했으며 전시에 활동이 편리하고 간편하다는 이유로 남자에게는 국민복을 여자에게는 몸빼바지를 강요했으며 40년대에 들어서는 사치금지령이 내려짐에 따라 한창 유행하던 비로드는 생산이 중지되고 파마머리도 사치풍조의 하나로 금지되었다. 전쟁 직후에 밀려오는 외제상품으로 서양풍에 물들어 지나치게 화려한 화장과 옷차림을 한 여성들을 날카롭게 비난했으며 사치품의 유입을 막고자 외래품, 고급양복, 모자, 구두, 장식품 등의 밀수를 근절하려는 노력이 계속되었다.

III. 한국 스트리트 패션에 표현되는 도덕성

1980년대와 1990년대 한국 스트리트 패션에 표현되는 도덕성에 대한 사례연구를 위해서 전신이 모두 나타난 거리의 일반인의 사진을 중심으로 월간 멋에서 306점의 사진, Céci에서 348점의 사진을 수집하였으며, 정숙, 노출, 사치, 도덕을 키워드로 인터넷 검색을 한 결과 조선일보, 동아일보, 매일경제에서 총 409편의 기사를 수집 분석하였다.

1. 1980년대 한국 스트리트 패션과 도덕성

한국에서 1980년대는 경제적 그리고 문화적으로 많은 변화가 이루어진 시기로 1986년에 개최된 아시안 게임과 1988년 서울 올림픽 등의 국제적인 행사는 해외여행 자유화, 수입 자유화와 같은 개방정책과 함께 국제적인 교류는 물론 외국과의 문화접촉 기회를 증가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1983년 교복 자율화로 인해 청소년층을 대상으로 캐주얼 시장이 급속도로 확대되었으며 중저가 캐주얼 브랜드와 진 브랜드가 부각되기 시작하였다. 또한 해외 브랜드가 라이선스 형식으로 다양하게 도입되고 국내 브랜드 시장도 세분

화되면서 패션 산업의 면모를 갖추기 시작하였다. 또한 1984년 국내 패션 전문잡지인 ‘멋’이 창간되어 이전의 여성 잡지와는 달리 좀더 전문적인 패션 기사를 제공하기 시작하면서 대중의 패션에 대한 관심을 증폭시켰다.

1) 정숙성

82년 3월에 조선일보는 “미니가 돌아온다”라는 제목 하에 짧아지는 여성의 미니 유행에 대해 그리 부정적이지 않은 시각의 보도를 하고 있다. 발목을 보이는 것을 충격적으로 받아들이거나 치마길이를 법적으로 규정하고 과다노출에 대한 단속을 할 정도로 노출에 대해 수용하지 못하던 이전과는 사뭇 달라진 가치관을 이 기사를 통해 알 수 있다. 다리가 온통 드러나는 최초의 미니와는 달리 종아리에 발목덮개를 끼어 신고 험렁한 스웨터와 함께 입는 오늘의 미니스커트는 꼭 끼는 청바지 보다 오히려 노출이 덜한 편이라 하였으며 다시 여성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미니봄은 짧은 여성들 뿐 아니라 자신의 몸매에 자신이 있는 중년 부인에게까지 널리 스며들고 있다 하였다. 다리의 노출에 대한 사회 인식의 변화가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음을 알 수 있다. 85년 여름의 조선일보에는 “노출대목”이라는 제목 하에 봄비는 액세서리 점 변화가 리어가 행상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는 이유를 과감한 노출을 즐기는 신세대의 패션에서 찾고 있다. 기사에 따르면 목과 팔의 노출이 많은 여름이면 액세서리의 매출이 늘어난다고 하였으며 작년부터는 액세서리의 매출이 급증했다고 보고하고 있다. 팔과 다리의 노출을 도덕성의 정숙성과 관련하는 문제로만 보는 가치관에서 벗어나 하나의 패션 트렌드로 자리 잡으면서 액세서리로 과감한 분위기를 연출하는 스타일을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견해가 자리 잡았음을 알 수 있다. <사진 1>을 보면 커다란 귀걸이와 함께 시원하게 팔과 다리를 모두 드러내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흰 모자, 흰 티셔츠, 흰색 운동화로 색을 모두 맞추고 있다. 당시의 노출과 대담한 액세서리의 유행을 그대로 보여준다.

85년 여름에 ‘소매 없는 옷’ 선풍이 불었는데, 발랄하지만 직장이나 학교 등의 공식적인 장소에서는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었다. 88년 여름에는 반바지가 퍼서지, 캐주얼은 물론 정장 대열에까지 끼게 되었다. 당시 신문은 “정장 반바지는 그동안 서구에서 상당히 인기 있는 패션이었으나 우리나라에 본격 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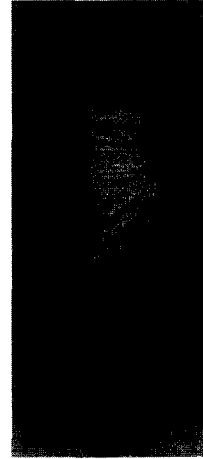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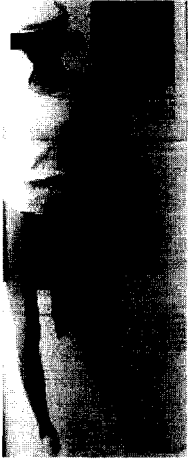
륙한 것은 이번이 처음. 그만큼 우리 감각이 개방적으로 변한 것”이라고 평하면서도 “다리가 흰히 들어나는 반바지에 맨다리로 직장에 가는 것은 난센스” (“시원...경쾌...반바지 거리 누빈다”, 1988)라고 지적하고 있다.

2) 사치성

경제가 안정되면서 사회적으로 사치풍조가 일기 시작했는데 의복의 사치는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었다. 이미 70년대 후반에 고가 여성기성복에 대한 비판이 시작되었고 80년대 중반에는 유아복도 외제 상표와 패션 바람으로 어른 옷값과 맞먹을 정도로 고가가 되는 등 전반적인 의류 가격이 높아졌다. 1980년대에는 서양문화와 친숙해지고 대폭적으로 개방되면서 물질적 성공을 지향하고 개인을 중시하는 가치관은 과시적 소비로 이어져 복식에서 고가품을 추종하는 사치성이 강하게 표출되기 시작한다.

80년대 전반에 걸쳐 의복의 사치에 대해 도덕적으로 비난하는 기사들을 신문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다. 주로 일부 고소득층의 소비 전진화를 촉구하는 내용과 사회의 향락적 분위기에 대한 각성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예컨대 서울 강남지역에 밀집된 먹고 마시고 노는 유흥업소들은 향락산업의 분업화 계열화를 이룩하면서 마치 이 지역 전체를 퇴폐적 향락산업 기지로 변모시키고 있는 느낌이라고 하였다. 웬만하면 막걸리나 소주 대신에 맥주와 양주를 마시고 여름휴가 썸썸이가 소득보다도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으며 88올림픽을 대비하여 향락산업의 육성이 시급하다는 명분 아래 여관, 술집, 사우나탕 등의 사치 퇴폐적 경향을 정부가 부추기거나 묵인해 왔다고 비난(“경계해야 할 사치·퇴폐풍조”, 1984)하고 있다.

83년 교복 자율화와 함께 한국일보는 2월에 “학생다운 복장윤리”에 대한 기사를 실었다. 고급메이커의 부채질과 소수학생의 분별없는 허욕이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특히 유행취향이 강한 10대에 그 허영의 불길이 당기면 전염력은 건잡을 수 없을 것이라 우려했다. 이렇게 소비를 지향하고 고가품을 선호하는 사회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의복에서 유행에 대한 관심이 강하게 형성되었다. 이 시기에 외국 유명 브랜드는 물론 국내 디자이너 브랜드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대학생들의 차림이 학생 신분엔 걸맞지 않게 사치 지향적 그리고 유행 지향적이라는 사회적 비판이 있었다. <사진 2>는 화려한 귀걸이와



<사진 1> 멋 1990년 8월 <사진 2> 멋 1990년 10월 <사진 3> 멋 1990년 8월 <사진 4> 멋 1990년 8월

당시 유행했던 금속 체인이 있는 핸드백을 든 여대생의 모습으로 몸의 곡선을 드러내는 노출이 심한 실루엣과 미니스커트를 착용하고 있어 전통적인 정숙한 여성의 이미지와는 큰 거리가 있다. <사진 3>은 리바이스 청바지를 입은 젊은 여성의 모습이다. 리바이스는 해외 유명 브랜드로 국내에 도입되어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캐주얼웨어 브랜드 중의 하나이다. 이와 함께 나이키, 리복 등 브랜드들이 젊은이들 사이에 유행했다. 일부러 바지는 찢어서 단정하지 않은 모습을 연출하고 있으며 빅 사이즈 셔츠와 함께 착용하여 유니섹스 스타일을 보여 준다.

2. 1990년대 한국 스트리트 패션과 도덕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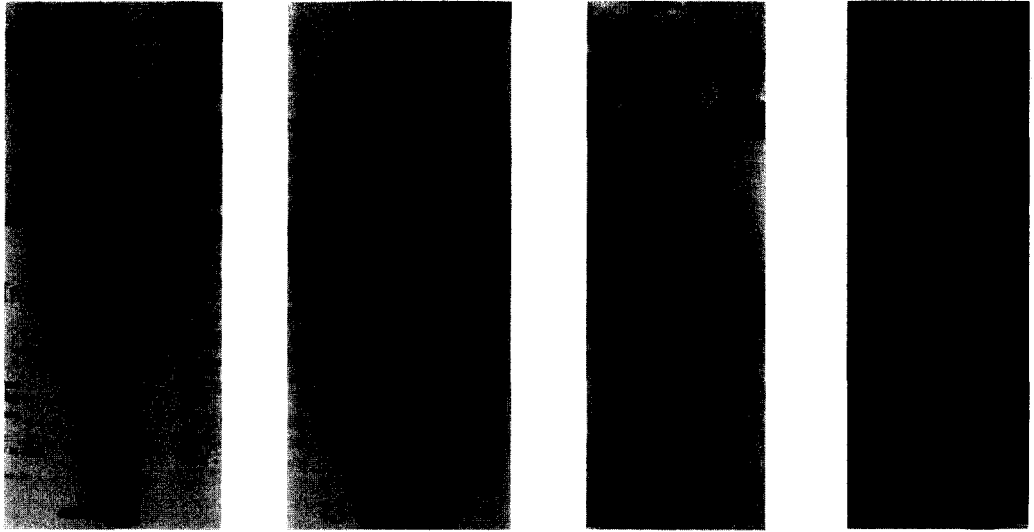
1) 정숙성

90년대 초반에 초미니스커트 바람이 불었는데 이 시대의 미니스커트 역시 활동 시의 노출을 비판받았으나 분명한 것은 90년대의 미니<사진 4>와 60년대의 미니는 그 의미가 사뭇 다르며 이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달라졌다. “사실 그 정도 여자 벗은 몸에 자극을 받을 사회가 아니잖아요(김종찬, 1991)” 이는 우리 사회의 도덕 기준이 분명 노출에 더 개방적으로 변했음을 단적으로 말해준다. 요즘 신세대들은 “멋있다 생각이 들면 그냥 멋있는 거예요. 어른들은 남의 시선을 걱정하지만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끄는 게 우린 훨씬 더 좋은데요(“남시선 끄는 차림 좋아요”, 1996)”라고 말할 만큼 그들은 남과 다르게 싶은 차별화 욕구와 강한 자의식을 갖고 있다. <사진5>처럼 한

여름에 찢어진 핫팬츠와 카우보이 부츠 차림도 상관 없이 자신만 멋있으면 그만인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노출되는 것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으며 개인주의 가치관으로 인해 본인만 만족하면 그만이라는 변화된 가치관을 강하게 표출한다.

80년대 이후로 젊은층들은 의복에 대한 개념이 ‘단순히 입는다’는 의미에서 개성을 추구하고 자기를 표현하는 수단이 되었다. 심지어 성의 상징이 되는 신체부위를 노출함으로써 성적 매력을 강조하는 과감한 노출을 동반하는 스타일이 등장하였다. 1990년대에 들어서 신체노출의 극대화현상으로 골반바지, 초미니 핫팬츠와 함께 우리나라에서도 미드리프의 노출<사진 6>까지 등장해서 허리는 물론 배꼽까지 드러내었다. 몸에 꼭 맞으며 허리를 드러내는 배꼽 티는 94년 7월 광주에서 경범죄에 기소되었으나 공공장소에서 몸을 지나치게 노출하거나 가려야 할 곳을 가리지 않아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줄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하여 무죄판결(“배꼽노출 무죄”, 1994)이 내려지기도 했다.

배꼽 티의 논란에 이어서 98년에 들어서면서는 노출패션의 하나로 ‘베어 룩(bare look)’(“대담한 노출... 올여름 베어 룩 물결”, 1998)이 유행했다. 어깨(베어 숄더)<사진 7>, 배(베어 미드리프), 등(베어 백)에 심지어 엉덩이 부분까지 드러내는 패션으로 전통적으로 노출을 금기시한 신체 부위를 드러내는 스타일을 총칭한다. 2000년도 들어서는 핫팬츠는 물론 초미니 스커트에 ‘백리스(backless)’까지 여름에 ‘노출패션’



<사진 5> Céci 1996년 8월 <사진 6> Céci 1996년 6월 <사진 7> Céci 2002년 8월 <사진 8> Céci 2002년 6월

이 강타한다. 2004년도 노출 패션에 대한 시각을 살펴보면 “신세대 몸매 표현 당당 아슬아슬 패션 거리 활보”, “튜브톱, 홀터넥, 쇼트 팬츠 등 노출 심할수록 잘 팔려” 등의 머리 기사를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신세대 남성들은 “자신의 몸매에 자부심을 느끼고 과감하게 표현하는 모습이 보기 좋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자신도 몸매가 드러나는 옷을 입는다(“벗어라! 개성을 위해...”, 2004)고 이야기 한다. 과감한 노출이 대중화되면서 패션업계도 발 빠르게 노출 아이템을 선보이고 있는데 매장에서 노출 패션을 쉽게 찾을 수 있다. 노출에 대한 인식이 종래와는 달리 긍정적으로 변화하면서 노출이 심할수록 더 잘 팔리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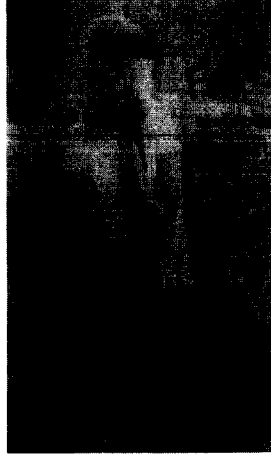
이러한 노출의 시대를 맞아 미인의 조건이 얼굴에서 각선미 등 몸매로 옮겨가는 새로운 풍속도가 생겨났다. 대학생들 사이에 과거 방학 때 유행이었던 쌍꺼풀, 코 성형수술에서 요즘은 다리 및 허리 부위의 살 빼기로 바뀐 것이다. 초음파 등을 이용해 체내의 지방을 분해 뽑아내는 지방흡입술을 써서 군살을 빼는 시술이 유행하고 있다(“노출의 시대”, 1993). 걸 옷이 아슬아슬하게 줄어들면서 액세서리와 속옷도 따라서 변해서 핫팬츠와 미니스커트 용 다양한 T자 팬티, 내놓고 드러내기 위한 반짝이 브래지어 끈 이 ‘필수상품’이다. 또한 체지방 분해를 촉진하는 성분을 가진 영양보충용 식품과 보디라인을 부드럽게 맵시 있게 가꾸주는 보디 켈 등 보디 슬리밍 제품들이

노출족을 타깃으로 적극적으로 출시되고 있으며 여름철 자외선 차단제, 패션 문신들이 인기다.

1990년대 중반에 들어와서는 새로운 소재의 개발, 새로운 감성의 추구,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의 대두 등으로 21세기 패션은 나날이 새롭게 변화하고 있다. 거리의 젊은이들로부터 시작되어 남녀를 불문하고 1990년대 크게 유행한 힙합 패션은 안에 입은 boxer shorts의 유명 브랜드 로고가 새겨진 허리 고무 밴드가 보이도록 내려 입고 ‘거리를 청소한다’고 할 정도로 바짓단을 길게 끌고 다녔던 것으로 역시 험렁한 상의를 입고 매우 큰 사이즈의 둔탁한 신발을 신었다(사진 8). 진 팬츠에 정장 재킷, 다양한 색상의 넥타이까지 동원한 차림새는 이제 출퇴근 복으로서 별 무리 없는 패션이 되었다. 또한 아웃웨어와 이너웨어가 교체되는가 하면 드레스에 베레모를 착용하기도 하고 또 정장에 색(sack)을 매기도 하고 캐시미어 롱코트에 청바지 차림으로 나타나기도 한다(박유리, 유수경, 1998). 남자들은 운동화나 스니커를 신는 경우가 많아졌으며 여름에는 발가락이 보이는 모양의 샌들을 많이 신기도 하였다. 과거 형식, 예절, 규범을 중시하던 형식주의가 거의 사라졌으며 개인주의 가치관을 표현하는 수단으로 복식을 바라보기 시작하였다. 다시 말해서 성, 연령, 계절, TPO 등을 기준으로 한 구별이 없어지고 이전까지 패션에 적용되던 전통적인 기준은 무의미해졌으며 이제 새로운 기준을 통해서 패션을 이해하게 된 것이다.



<사진 9> Céci 2002년 8월



<사진 10> Céci 2002년 8월



<사진 11> Céci 2002년 8월

1990년대 한국의 신세대들은 그들의 부모세대가 축적해놓은 경제적 여유를 바탕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손에 넣을 수 있는 우리 사회의 첫 세대라는 점(박재홍, 1993)에서 그 성장배경이 기성세대와는 아주 다르다. 그들의 부모는 권위적, 가부장적 가치관에 자녀들을 묶어두기 보다는 새로운 가치관을 갖도록 허용하고 결과적으로 준비시켰다는 점에서 이들 신세대들은 유교적 문화, 전통적 가치관 보다는 서구적 문화와 근대적 가치관에 익숙한 세대로 볼 수 있다. 현대의 변화한 가치관으로 무장하고 무채색으로 일관된 획일적인 복장에서 탈피하여 자기 자신의 개성을 표현 연출할 수 있는 혼련기간을 갖게 되고 패션에 대한 안목이 있다. <사진9>와 <사진10>에서 볼 수 있듯이 흑인의 헤어스타일 등 개성이 강한 스타일과 험렁한 군복바지에 양말을 신지 않은 스니커 차림을 마다하지 않거나 자신의 취향대로 옷에 색을 칠하고 낙서를 한다.

2) 사치성

한국 사회는 1980년대 후반에 막대한 불로소득의 발생과 소위 거품 경제로 물질주의와 과소비 지향하는 소비행태가 확대되기 시작하였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외국 브랜드에 대한 선호는 병적이라고 할 수 있다. 외제 브랜드 선호는 성인 사회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과 아동에게도 그대로 전달되고 있다. 미국산 “Eastpak”과 “Guess”, “Nix”와 같은 유명 청바지가 없으면 어울리지 못하고 베네통 티셔츠와 리복 운동화를 신지 않으면 따돌림을 당하는 것

이 최근 신세대들의 실상이다(“외제옷 걸쳐야 행세하는 사회”, 1996).

90년대 초에는 사회 전체가 극한 과소비로 치달기 시작하여 일반 서민은 상상도 못할 외제, 고가 의류가 백화점 진영장에 즐비하게 되었고 여론은 이를 성토하며 과소비 추방 운동을 대대적으로 벌였다. 1991년 11월 11자 Newsweek지는 커버스토리로 “Too Rich, Too soon”라는 제목 아래 한국의 사치풍조를 비꼬았는데 그만큼 우리나라의 사치 수준은 심각한 것이었다. 외제, 고가품 등 의복의 사치는 매 시기마다 그 품목만을 달리하며 지속적으로 등장하여 사회문제가 되었고 유행 자체도 급변하는 성질로 인해 비판받았다. 1999년 검찰은 ‘옷 로비 의혹 사건’과 관련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이 사건은 검찰 총장의 부인이 재벌 총수의 부인에게서 뇌물 성격의 밉코트를 받았다는 소문으로 시작되었는데 당시의 그 밉코트는 고급의 류점의 제품으로 가격이 3,000만원에 이르렀다는 소문이 있어서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켰다.

90년대에 노출에 대해 관대해 지는 경향과는 달리 사회적으로 사치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비난의 목소리가 높았다. 1996년 7월 매일경제신문의 사설에서 “또 하나의 문제는 우리 사회의 소비성향이 실용성 위주의 상품보다는 유명 브랜드 위주의 이른바 허영 및 사치성 구조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고가 유명상표에 대한 선호도가 크게 높아지고 이에 따른 로열티 지급이 급증하고 같은 수입상품이라도 높은 값을 매겨야 잘 팔리는 형상도 모두 이에 연유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심각한 과소

비 풍조”, 1996)고 하였다. 또한 97년 동아일보는 “우리 사회의 해묵은 과소비풍조는 물론 일부 지각없는 부유층에 의해 선도되었다. 그러나 어느 틈엔가 국민 모두가 모방불감증에 감염된 모습이다. 우리나라의 미국산 모피 수입액이 2년째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다는 통계는 우리의 심각한 과소비불감증을 입증하는 한 표본이다. 소비의 절제와 합리화가 급하다” (“여전한 과소비 현상들”, 1997) 하였다.

2000년대 들어서면서 소비문화가 변화하고 있다는 기사들이 많이 있는데, “나를 위해선 아낌없다”, “사고 싶은 건 악착같이 사고야 만다” 등 개성 찾는 ‘사치’엔 아낌없이 쓰는 소비문화(“도전 2029세대”, 2000)를 지적하고 있다. 또한 과소비 알지만 자기만족 위해 구입한다는 이들은 “명품은 과소비다. 하지만 자기만족을 위해서라면 고가품을 살 용의가 있다” (“명품족 의식 조사”, 2002)고 하였으며 젊은 명품족이 늘어나는 가운데 20-30대들은 명품에 대해 이처럼 이중적인 소비 의식을 갖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사진 11>은 유명 브랜드의 로고가 있는 모자, 가방, 샌들, 선글라스를 착용하고 있는 젊은 명품족이다.

고찰결과를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IV. 결 론

인본주의, 유교주의, 보수주의를 바탕으로 하는 뿌

리 깊은 한국인의 가치관의 문제로 “패션”이라는 개념이 지금 현재 수용되었듯이 긍정적으로 수용되기까지는 많은 도덕성 논란이 있어왔다. 그러나 현대에도 복식과 관련한 도덕성의 문제는 복식이 갖는 특성으로 인해 항상 논란의 여지가 남아 있다.

구체적으로 인본주의에서 과시적 소비와 배금주의적 성향인 물질주의로, 형식과 외례를 중시하는 유교 문화에서 평등과 실리를 중시하는 민주주의 문화로 그리고 보수주의에서 개방주의로 한국인의 가치관이 변화했다. 현대 스트리트 패션을 중심으로 한국인의 도덕성의 변화와 복식 형태의 변화를 관련지어 살펴본 결과,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노출의 문제와 관련하여 1920년대 미니스커트로 다리의 노출이 시작되었으나 치마길이에 사회적 규제를 두는 등 도덕적으로 심한 비난을 받고 대중에게 널리 수용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1960년대와 1970년대를 지나면서 강한 사회적 비난에도 불구하고 미니스커트의 유행은 지속되었으며 짧은 의복 길이에 의한 노출이 아닌 맞춤새를 통한 노출도 시작된다. 1980년대에는 팔, 다리의 노출과 함께 실루엣을 통한 노출이 적극적으로 진행되기 시작한다. 최근 들어서의 복식에서의 노출은 팔, 다리 그리고 실루엣을 통한 노출을 더욱 넘어서서 노출의 정도는 어느 특정 부위를 벗어나 베어 룩과 같은 유행을 가져왔다. 노출의 문제에 대해서 현대 한국인들은 과거 그 어느

<표 1> 스트리트 패션에서 도덕성과 관련한 복식의 외적 형식 변화

년도	도덕성	정숙성		사치성		
	노출의 문제	관습 및 복식 규범의 문제		유행지향성	고가품 지향성	소비지향성
1920년대	· 미니스커트 · 수영복 등장	· 발가락과 뒤꿈치가 보이는 샌들 · 단발머리와 파마 · 매니큐어와 화장		· 핸드백, 손목시계, 하이힐 구두유행		
1960년대 1970년대	· 미니스커트 · 지나치게 몸에 꼭 끼는 바지	· 유니섹스 룩 : 불루진, 더러운 넓고 긴바지, 바짓 단이 헤어진 바지 · 남성의 정발		· 모자, 구두, 장식품 유행 · 화장 · 고감양복 · 비로드 치마		
1980년대	· 미니스커트 · 꼭 끼는 실루엣 · 팔과 다리의 노출: 소매없는 옷	· 학생답지 않은 복장: 봄매물 드러냄, 금속 체인 백, 화려한 귀걸이 · 반바지 정장 · 맨다리 · 찢어진 청바지 · 유니섹스 모드		· 외제유명상표: 나이키, 리복, 리바이스 등 유행 · 과감한 액세서리의 유행 · 고가 여성기성복 등장		
1990년대 2000년대 (현재까지)	· 초미니스커트 · 골반바지 · 미드리프 노출 · 핫팬츠 · 베어 룩 · 백리스 · 뉴트류 · 홀터넥	· 한여름에 카우보이 부츠 · 힙합 패션: 홀라내리는 바지, 긴 바짓단 · TPO불과: 청바지와 정장 재킷, 정장과 백 백, 정장과 스니커 · 남성의 발가락 보이는 샌들 · 양말 없이 신는 운동화		· 외제브랜드 선호: Eastpak, Guess, Nix, 베네통 등 · 흑인 헤어스타일 · 군복의 착용 · 고가품 선호 · 고가 명크코트 뇌물사건		

때보다 관대해지는 경향이다.

여기서 주목할만한 점은 1980년대에 들어서 시각적으로 자극적인 노출을 유행으로 인정하면서 노출의 문제에 상당히 익숙해지고 관대해지는 경향이 나타난 것과 비교할 때 정숙성에서 관습 및 복식 규범에 대해서는 1990년대에 들어서야 좀더 관대해진 사실이다. 1970년대 여성들이 남성들과 같이 블루진을 착용하였을 때, 그 스타일의 단정하지 못함과 위생적이지 못함은 물론이고 남성과 여성이 같은 스타일을 착용한다는 측면에서 여성의 블루진 착용이 특히 기성세대의 비난의 대상이 되었다. 1980년대도 젊은이들의 스트리트 웨어에 적극적으로 반영된 유니섹스 모드는 유교문화의 남녀유별을 중시하던 기성세대들에게는 충격적인 것이었으며 사회적으로 많은 비난을 받았다.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던 기존의 복식규범들은 1990년대 들어서야 전체적으로 흔들리고 무너지기 시작하였으며 이 때부터 유니섹스 모드를 하나의 유행으로 인정하기 시작했다. 이처럼 관습 및 복식 규범과 관련한 정숙성의 측면에서 미의식은 매우 천천히 어렵게 변화하였는데, 그 이유는 한국인의 가치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유교문화에서 형식과 예절을 중시하는 가치관의 지속적인 강한 영향 때문으로 사료된다.

둘째, 전반적으로 복식과 관련하여 도덕성을 주제로 한 신문기사를 가운데 정숙성보다는 사치성과 관련한 기사의 빈도가 훨씬 높았다. 1980년대 한국 정부의 서비스 및 소비 산업의 육성 정책으로 사회 전반에 사치성이 강하게 표출되기 시작했다. 이를 계기로 서양문화와 친숙해지고 대폭적으로 문화가 개방되면서 물질적인 성공을 지향하고 개인을 중시하는 방향으로의 가치관 변화가 이루어졌으며 이러한 가치관의 변화는 일부 소비층의 과시적 소비로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복식에서 명품과 고가품을 추종하는 사치성은 도덕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많은 비난을 받아왔다. 복식과 관련하여 정숙성에 대한 도덕적 가치관의 변화가 사치성에 대한 도덕적 가치관의 변화보다 빨리 일어나 1990년대에 노출 혹은 복식 규범과 관련한 스트리트 패션의 형식 변화를 하나의 유행으로 인정하여 긍정적인 수용이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사치와 관련해서는 사회적으로 지속적인 강한 비난이 있어왔다. 비로소 2000년대에 들어서 명품과 고가품 그리고 유행 지향성은 비록 사치이지만 자기만족을 위해서는 구

매할 의사가 있다고 당당하게 의견을 밝히는 젊은이들의 가치관 변화와 함께 이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일부 조성되고 있는 경향이다. 한국인들은 전통적인 가치관의 영향으로 복식에서 사치성과 관련한 도덕성에 관한 미의식 다시 말해서 소비와 관련된 패션 상품의 특성에 대해 그리 긍정적인 가치관의 형성에 아직은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연구에 있어서 사치성에 대해서 유행지향성, 고가품 지향성, 소비지향성의 특성들이 서로 강한 관련을 가지므로 복식의 특정 형식을 위의 기준에 맞추어 고찰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다. 그리고 사례분석을 위한 시각자료를 수집하는데 있어서 한국에서 본격적으로 스트리트 패션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은 80년대 말부터로 순수한 스트리트 패션 자료 수집에 어려움이 있어 사진 자료는 1990년부터 분석하였으며 그 전 시기에 대해서는 신문 기사에 의존하여 자료를 분석한 한계가 있다. 후속 연구로 1980년대와 1990년대의 구체적인 자세한 패션 디자인의 변화를 살피기 위해서 텔레비전 뉴스 또는 다큐멘터리 등의 비디오 미디어 자료를 이용한 연구가 후속으로 기대되어진다.

참고문헌

- 강경자. (2001). 1990년대 신세대 의복 정숙성에 관한 연구. *한국복식학회지*, 51(3), 141-153.
- 경계해야 할 사치·퇴폐풍조. (1984, 8. 23). *매일경제*, p.2.
- 김종찬. (1991). 미니스커트의 수락과 거부. *샘이 깊은 물*, (8), 126-129.
- 김찬주. (2003). 세계 패션선도 도시들의 남성 스트리트 패션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7(3/4), 298-309.
- 노출대목. (1985, 6. 9). *조선일보*, p.6.
- 노출의 시대. (1993, 8. 30). *조선일보*, p.4.
- 대담한 노출...올여름 배어 록 불걸. (1998, 7. 31). *조선일보*, 경제.
- 도전 2029세대. (2000, 3. 20). *조선일보*, p.4.
- 명품족 의식 조사. (2002, 7. 18). *조선일보*, 경제.
- 미니가 돌아온다. (1982, 3. 19). *조선일보*, p.6.
- 미니스커트. (1968, 8. 6.). *조선일보*, p.4.
- 박유리, 유수경. (1998). 한국 신세대여성의 패션특성에 관한 고찰-1990년대부터 1995년까지 라이프스타일과 의복행동을 중심으로-. *복식문화연구*, 6(1), 14-24.
- 벗어라! 개성을 위해. (2004, 6. 3). *중앙일보*, 문화.
- 배꼽노출 무죄. (1994, 7. 20). *조선일보*, p.4.

- 배용광, 변시민. (1984). *한국 사회의 규범 문화*.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배해수의 공저. (1994). *한국인의 도덕성 연구*. 아산사회복지사업재단.
- 세계여성의 복장 블루진. (1977, 8. 25). *조선일보*. p.4.
- 시원...경쾌...반바지 거리 누빈다. (1988, 8. 11). *조선일보*. p.8.
- 신소윤. (1994). *개화기 이후 우리나라 복식의 도덕성에 관한 사적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여전한 과소비 현상들. (1997, 11. 29). *동아일보*. p.3.
- 염혜정, 조규화. (1992). 한국 신세대의 복식양식. *한국의류 학회지*, 16(3), 233-242.
- 외제옷 걸쳐야 행세하는 사회. (1996. 7. 25). *매일경제*. p.3.
- 유수경. (1990). *한국여성장장변천사*. 서울: 일지사.
- 유희경. (1980). *한국복식사연구*. 서울: 이화여대출판부.
- 학생다운 복장윤리. (1983, 2. 20). *한국일보*. p.2.
- 현대패션 100년 편찬위원회. (2002). *현대패션 1990-2000*. 서울: 교문사.
- Creekmore, A. M. (1966). Method of measuring clothing variables. *Michigan Agricultural Experiment Station Project*, 96-102.
- Ellis, H. (1936). *Studies in the psychology of sex*, Vol. 1. N.Y.: Randonme House.
- Flügel, J. C. (1930). *The psychology of clothes*. London: Hogarth Press.
- Horn, M. & Gurel, L. (1981). *The second skin* (3rd ed.). Houghton Mifflin Co.
-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the Social Sciencs, Vol. 11. (1968).
- Langner, L. (1959). *복장의 심리*. 박동윤 역 (1981). 서울: 유신문화사.
- Ribeiro, A. (1986). *Dress & morality*. London: B.T. Batsford Ltd.
- Rosencranze, M. L. (1977). *Clothing concepts*. Macmillan Publishing Co.
- Webb, W. M. (1971). *The heritage of dress*. Detroit: Singing Tree Press.